



경기도 김동연, 귀국 후 첫 일정으로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현장점검

22일 평택 진위천 합류부 점검 뒤 관계기관과 대응방안 논의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7박 9일 간의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밤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곧바로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평택 시 청북읍 백봉리 진위천 합류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화성시 양감면 양감수질복원센터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안민석 국회의원,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애쓰셨다. 도에서 재난관리기금도 지출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라든지 특별교부세 신청도 협력하겠다”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환경단체나 주민들께도 아주

투명하게 알려드려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9시 55분경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소하천과 관리천으로 유입돼 8.5km 구간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긴급대응지원단을 구성한 도는 18일 이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교부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현재 총 19곳에 방제둑을 설치하고 탱크로리를 투입하는 등 오염수 차단에 나서 21일까지 3만 5,509톤을 처리했다. 도는 방제둑을 지속 보강하는 한편 오염수 반입 하수처리장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오염수 처리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병상/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시도지사협 재의결 안건, 대통령 직보시스템 필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광역 비자 제도 도입 등 건의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통령 직보방안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개선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

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에 대해 “특별행정기관 지방 기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체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

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에 대해 “특별행정기관 지방 기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체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

박종배/기자

경북도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 콜로키엄 개최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전문가와 함께 회고와 전망 논의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학교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주요 성과와 평가를 위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지난 19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별 자치경찰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교통안전 정책 순회 간담회 △자치경찰 홍보단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 등 여러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정 이하의 형식적 임용권 △시도경찰청장을 통한 지휘권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이 약속했다”라면서, “갈수록 치안수요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가로등 100% LED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만든다

가로등 CCTV·무선인터넷 등 융합... '한강교량'에 특화조명, 올해 원효·가양대교 개선

서울 시내 야간 도시경관이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탈바꿈한다. 내년까지 모든 가로등이 더 밝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되고, 시간대나 기상 상황에 맞춰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가로등과 비상벨·무선인터넷(WiFi)·도시데이터센터 등을 융합한 편리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물을 도입하고, '한강교량'에는 서울의 매력을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올해 가로등 개량 180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 총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 가로등 개량 외에 △가로등 스마트 밝기 조절(디밍 시스템)에 5억 원 △가로등 원격점검 시스템 구축에 9억 원 △경관조명 시설 개선에 2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시도(市道), 자동차전용도로, 교량과 고가차도 등에 15년 넘은 노후 가로등과 조명시설을 전면 개량한다.

시는 시설 노후로 발생할 수 있는 누전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도로 운전자에게 밝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가로등 3,475등 △가로등주 2,185본 △전선로 65km △분전함 303면을 교체할 계획이다.

시도(市道) 상 가로등은 내년까지 100%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작년 말까지 시도에 설치된 가로등 14만 2,822등 중 92.3%(13만1,826등)를 LED로 교체, 전기요금 연 54억 원과 온실가스 24,652 tCO2(이산화탄소톤)을 줄인 바 있으며 올해는 잔여 본 중 3,475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13년부터 가로등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나트륨·메탈광원 등이 적용된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 중이다. 서울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실외 LED 조명 설치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또 교통량이 줄어드는 야간에 가로등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밝기 제어장치 '디밍(Dimming)'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구 무교로 등 14개 노선 가로등 3,977본에 디밍 제어장치를 설치, 연간 20~30%의 전력량을 추가로 절감하고 있다. 올해는 강남구 일대에

588본을 설치할 예정이다.

디밍 시스템은 가로등 밝기를 1~100%까지 1%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장치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밝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이들 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전력량 연간 1,413 MWh(메가와트시), 전기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5억 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625.9tCO2(이산화탄소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출, 일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제어했던 가로등 점.소등 방식을 앞으로는 날씨와 교통정보를 연계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로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가로등 고장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점검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올해 중으로 누전 등 기기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점검장치를 시도(市道) 상 가로등 분전함(총 4,540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한 '실시간 원격점검'이 이뤄지면 가로등 이상 여부를 즉각 확인 및 조치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등에 각종 시설물을 융합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경관에 재미를 주는 편(Fun) 디자인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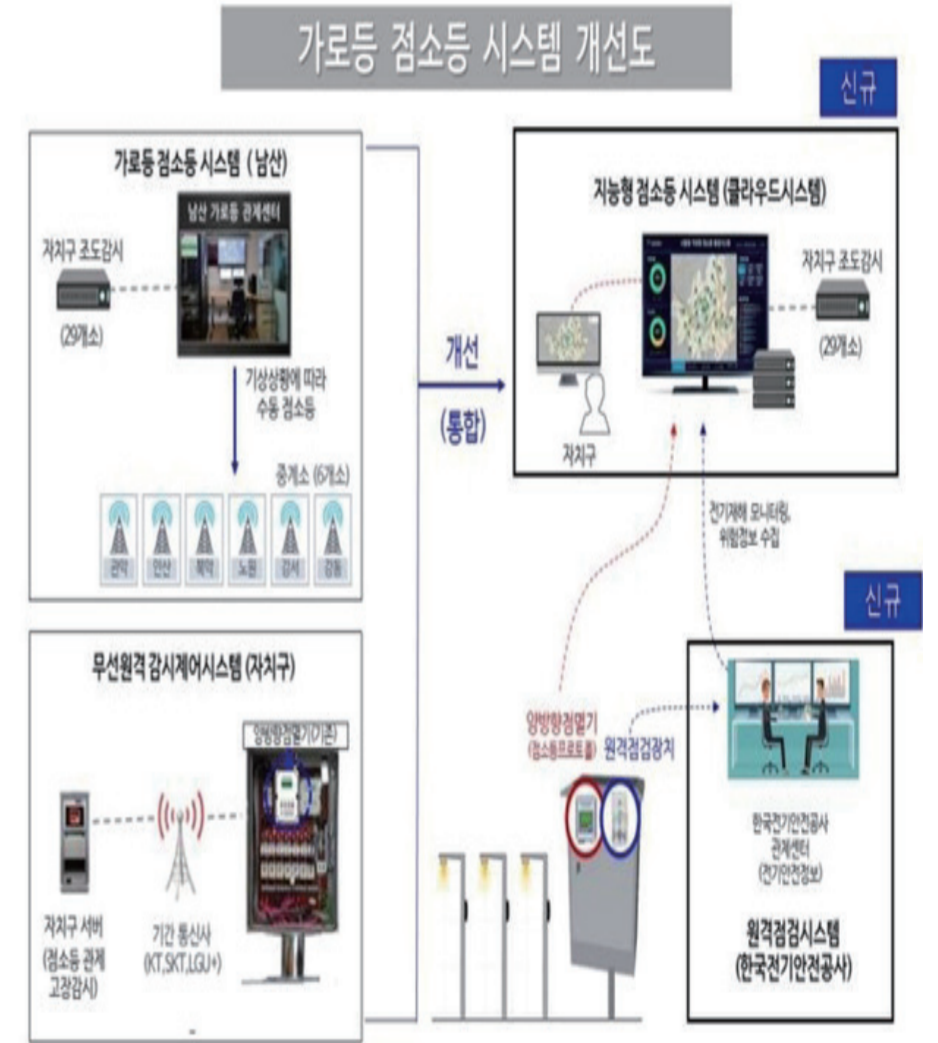
도시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시민 안전도 높이기 위해 가로등에 △CCTV △비상벨 △무선 인터넷(WiFi)과 함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음·미세먼지 등 17종의 도시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도시데이터센터(S-DoT)도 통합 설치한다.

시는 현재 가로등에 범죄예방, 주차관리 등을 위한 △CCTV 133개소,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96개소, △와이파이 120개소, △미세먼지.조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센서 1,087개소 등을 융합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가로등주와 신호등, 보행안내표지판과 가로등 분전함을 통합하는 한편 분전함 일체형 가로등주를 확대해 미관뿐 아니라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또 가로등에 재미있는(FUN) 디자인 요소를 더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가로등주와 사인물 통합 분전함 605면, 가로등과 신호등 통합주 1,170본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기념일, 행사 등 이벤트 기간 중 거리 조명을 특정 색상으로 연출하거나 보행로 벽, 바닥에 메시지 등을 투



영하는 편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 이색적이면서도 안전한 거리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야경이 아름다운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데 필수라 할 수 있는 '한강 교량' 경관조명도 개선한다. 단기능으로는 거점 교량을 선정, 특화해 조명을 비롯한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한강 교량 경관조명을 통한 연출할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강 교량의 오래된 경관조명 시설을 연차별로 개량하고 있다. 올해는 조명시설이 노후한 원효대교, 가양대교의 단색 경관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다채로운 색으로 연출할 수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두 교량의 조명시설은 모두 2002년에 설치돼 노후할 뿐 아니라 당시에는 LED 조명을 적용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낮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이번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 시내 '야간경관 축'을 고려하여 지역·노선별 가로등의 광원 색온도를 다르게 설치, 각 지점에 어울리는 색상과 밝기로 조성 중이다.

'도로조명 색온도 기준'에 따라 △광로.대로는 4,000~5,000K △중로 3,500~5,000K △소로 3,000~4,000K △사대문 내 3,000~3,500K △한강변 2,700~3,000K로 구분해 서울 시내 야경을 연출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야간 조명은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매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민 삶의 질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다양한 조명시설이 잘 어우러져 서울을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밝힐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경북도의회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반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 “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 데 의정역량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함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지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 및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

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 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



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가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

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 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최

대구시의회가 오늘 24일(수)부터 2월 2일(금)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1월 24일(수)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월 26일(금)부터 2월 1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

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2월 2일(금)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원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근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성금 전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9일, 북구의회 의정실에서 2024년도 적십자 특별성금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대식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박명수 회장, 지정식 사무처장, 적십자봉사회 대구시 윤태임 부회장, 북구지구협의회 유기량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십자 회비는 북구의회를 대표해

차대식 의장이 직접 전달했으며, 재해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대식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북구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2024년 첫 임시회, 1월 24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13일간 개최 부산광역시·부산시교육청 2024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44건 (조례안 34, 동의안 7, 의견청취안 3)

1월 24일(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3명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의회가 2024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4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4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5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19회 임시회는 3월 4일(월)에서 14일(목)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희태/기자



대구 군위군의회,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군위군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고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각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이런 임시회는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복순 의원)은 의원발의건이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통하는 바른 의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위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군위군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 현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되었는지 살피고, 다양한 의견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부회장:임성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키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최다 대출 전자책은 '달팽이 식당'

지난해 최다 대출 전자책은 '달팽이 식당', 오디오북은 '어린왕자' 차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2023년 전자책 대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안 경기도민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전자책 1위는 오가와 이토 작가의 '달팽이 식당'(알에이치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트리나 포올러스 작가의 '꽃들에게 희망을'(소담출판사), 3위는 치넨 미카토 작가의 '중이학 살인사건'(북플라자)이 뒤를 이었다.

4~10위에는 '거레량으로 투자하라'(버프 도르마이어, 이레미디어), '난 장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커뮤니케이션북스), '말괄량이 사이코패스'(기윤술, 고즈닉이엔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김부장 편'(송희구, 서삼독), '동급생'(프레드 올만, 열린책들),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히가시노 게이고, 소미미디어), '디 아더 미세스(The Other Mrs.)'(메리 쿠비카, 해피북스투유)가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귀로 듣는 오디오북은 '어린왕자'(샘뎁취베리, 사운드북스), '드라마로 듣는 그리스 로마신화'(편집부, 사운드북스), '돈의 속성'(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가 1~3위로 작년과 동일 순위를 유지했다.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려고 했다'(개리 비숍, 켈리온), '모순'(양귀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 새로 4, 5위를 차지했으며, '완전한 행복'(정유정, 은책나무), '넋지'(리처드 탈러 외, 리더스북), '소년이 온다'(한강, 창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데일 카네기, 현대지성),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이현수,

수카)가 각각 6~10위를 이어갔다.

동시 다수가 예약이나 대기 없이 볼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 대출 1위는 '도파민네이션'(애나 렉키, 흐름출판), 2위는 '불편한 편의점'(김호연, 나무옆의자), 3위는 '역행자'(자청, 웅진지식하우스)이 차지했다. 4~10위는 '파친코1'(이민진, 인플루엔셜), '메리골드 마을 세탁소'(윤정은, 북로망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김혜남, 메이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장하준, 부키), '내면소통'(김주환, 인플루엔셜), '트렌드 코리아 2023'(김난도 외, 미래의창), '달리구트 꿈 백화점'(이미미, 북닷)가 순위를 이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난해 신규 회원 수는 7만 2천여 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자료는 2만 2천 여종이다. 2023년 도민이 이용한 전자책 대출 건수는 구독형 전자책까지 포함하여 97만 건에 이른다.

주제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소설(23.4%) '경영/경제(16.2%)' '어린이(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컴퓨터-인터넷 분야가 1.2%, 인문 분야가 0.4% 상승했으며 소설 분야가 0.2% 소폭 하락하고, 어린이 분야도 1.5%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회원 비율은 40대(24.8%)와 20대(21.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전자책 이용률은 40대(28%) '30대(22%)' 20대(16.6%) 순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 성별로는 여성 62%, 남성 38%로 전년 대비 남성비율이 5% 감소했다.

월별 이용률은 1월(10.2%) '3월

(8.8%) '2월(8.7%), 8월(8.7%) 순으로 방학 기간과 신학기 시기에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15.3%, 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말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이라면 현재 1인 최대 12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전자책 10권(대출기간 5일), 국외전자책 2권(대출기간 14일)이며, 구독형 전자책은 3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최종현 경기도의원, "기회마을 조성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해야"

"기회 수도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장애인기회마을 조성 적극 추진해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비장애인과의 교류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장애인복지분야 관계자,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장 등과 '경기장애인기회마을'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시설 제공, 지역 사회 교류, 사회참여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공동체 '(가칭)경기장애인기회마을'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주거(소규모 주거시설, 임대주택, 분양주택), 맞춤형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기관), 교육(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사회통합 및 일자리(커뮤니티센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광장), 근린시설(생활가게, 병의원)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이 인권을 존중받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교류, 소통 등이 같은 공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경기도형 장애인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관협력

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공동체 공간 조성과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지역 사회 교류를 통한 사회참여 증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회 수도 경기도가 모두를 위한 장애인기회마을을 조성

을 통해 장애인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관련 근거 마련

남경순 부의장, 정담회를 통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수원1, 국민의힘)이 1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위치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하여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영욱 교수, 한국나노기술연구원 광소자개발실 김신근 실장,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국 지자체별 양자 관련 기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성안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을 검토하는 열띤 토의와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남 부의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정담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균관대학교 정영욱 교수님의 고견에 고마움을 전하며,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2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개선 추진방안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연구원 운영개선 추진현황 점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 직원들과 연구

원 운영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원에

구한 사항에 대한 연구원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연구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에 대하여 협의했다.

최효숙 의원은 "연구원의 개선·발전을 위해 원장과 함께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육정책 연구 중심의 연구원으로 개선·발전 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연구원 관계 직원은 "연구원의 전 직원들이 최고의 발전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효숙 도의원은 연구원 개선·발전을 위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갑진년 청룡의 해, 설맞이 여주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여주시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을 걸쳐 여주시청 광장에서 여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지난 해 추석명절 직거래장터 행사로 시민과 농가로부터 칭찬과 큰 호응이 있어 작년 이어 두번째로 개장하게 된 것으로, 남한강의 맑고 깨끗한 물과 흙,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대왕늪표 명품 여주쌀과 여주쌀로 만든 떡, 사과, 배, 고구마, 땅콩, 밤, 버섯, 전동주, 계란 등 다양한 품목으로 생산능가가 직접 참여한다.

여주시는 본 행사를 통해 여주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설 명절에 필요한 고품질 농산물

및 가공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토록 하며 고품질 시대, 생산비용 상승에도 깨끗이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장터를 개장하게 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공직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행사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명품 농산물 구입을 통해 설 명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이 됐으면 하며, 본 장터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앞으로도 명절을 대표하는 여주시청 직거래장터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워크숍 개최

화성시가 아동위원의 활발한 정책 제언을 위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워크숍을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화성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첫 활동으로 아동위원 74명과 퍼실리테이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들의 아동권리 및 의회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의회활동 안내 ▲아동권리 이해 ▲의정단 선출 ▲상임위원 토론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연옥 아동문화과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아동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구축을 위해 앞



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2017년 1대 아동의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출범했다.

양시현/기자



수원시, '2024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참여자 모집

1월22일부터2월2일까지 온라인(새빛톡톡)·방문 신청

수원시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을 받는다.

시민농장은 수원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경작하며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 준다.

▲담동 시민농장 1500세대(16m²) ▲두레물 공원 140세대(10m²) ▲물향기 공원 180세대(10m²)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5~10m²) 등 4개소 1900세대 텃밭을 배정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대

상자로 선정되면 3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세대당 1개 텃밭을 배정한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4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탐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45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으로 신청해도 된다.

텃밭 추첨 결과는 2월 14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료를 납부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텃밭 체험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키 큰 작물, 덩굴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 친환경 도시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비닐·화학비료·화학농약 등 화학 자재 사용금지). 또 텃밭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이웃에

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4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은 텃밭 하나를 가꾸며 얻는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개관



처인구 삼가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마을활동가 교육·공동체 컨설팅 등 제공

용인특례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안에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대해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개관식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값진 새 출발을 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공간이 많은 시민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나눠 값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 502.82m² 규모로 조성된 거점공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과 다목적실, 실험실, 마을사랑방 등을 갖췄다.

시비 19억 4200만원과 도비 1억원 등 총 20억 4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담제이던 용인특례시를 제가 취임 후 교부단체로 전환시켜 지난해 269억원, 올해도 26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방세가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업무추진비 조



차 10% 줄었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12%를 늘렸다"며 "주민 자치의 핵심인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진 마을을 만드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에 같은 건물 1층에 개관해 교육·컨설팅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오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마을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실을 하도

록 했다.

이곳에서는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진행자와 마을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소통 공간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청년 등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연차별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도 보존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서 직접 소통

시민 1000여 명 참여, 동별 건의 사항에 해결 방안 제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 오후 2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분당구(을)]'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올해는 성남시가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시작하는 첫해로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주요 시정 현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핵심 시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시민들은 분당구 분당동 빌라단지과 수내2동, 수내3동 등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호소하며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과 최근 통행을 재개한 수내교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신 시장은 "주차장 관련 현안 사항이 많아 총괄 대책을 수립해 주

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 자리에서 주차장 해결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 시장은 수내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교대와 교각 사이 하부에 철골 기둥을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서울·판교와 분당 방면에서 트러스 구조의 5m 높이 철골 기둥을 각각 16개씩 총 32개를 설치했다"면서 "내년 12월까지 기존 8차로 통행을 유지하면서 수내교 재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자2동 한솔어린이공원 내 빗물받이 간 사이가 넓게 벌어져 있어 시민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 보수 요청한 건의에 대해 어린이공원 빗물받이 유지·관리공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청사를 건립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금곡동 임시 청사 이전 장소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지역 건물에 공실이 없어 임시 청사 이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니 시민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신 시장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휴대폰 바로문자서비스(010-5920-0184)를 통해 현장에서 문자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 답변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문자로 민원이나 의견 제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빠르게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인사회를 시작으로 오는 1월 29일까지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수정구[1.24(수) 14시, 성남아트센터대극장], 중원구[1.25(목) 14시, 성남종합스포츠허브 다목적체육관], 분당구[1.29(월) 14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건의 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개최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2022년도 개발행위허가 받은 123건 대상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월 22일부터 2022년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매·공유 지분 분할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23건이다. 구는 분할허가 토지에 대한 조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조건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선 및 서면으로 허가 조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관행적 또는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이천쌀문화축제, 문체부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이천시 대표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지역문화매력 100선(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됐다.

지역문화매력 100선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력적인 지역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실시, 이천시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초로 단독 선정됐다.

또한 생활·역사형 축제 부문 전국 14개 축제 중 하나로 등재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와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이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축제로서 위상을 다졌다.

이천쌀문화축제는 그 해 수확한 햅쌀을 소재로 잊혀져가는 농촌의 추억을 되살리고 고유의 농경문화 명맥을 잇기 위해 1999년 최초 개최됐다.



2023년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셔틀버스 배차 간격을 15분까지 단축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통해 생활 밀착형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지 관광객이 과반수를 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천시는 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점을 꼽으며 "성숙한 시

민의식으로 모두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천쌀문화축제의 의미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2024년 가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서 개최된다.

김범상/기자

이현재 시장, 감북동 지역 발전 위해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 노력하겠다"

감북동 주민과의 대화서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 추진 의지 밝혀

하남시가 22일 감북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감북동이 하남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감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 △감북-01번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 △노후도로 및 비포장도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동남로 연결도로는 '교산신도시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초광상거리에서 동남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

기돼 왔었다.

이 시장은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와 관련해 "연결도로가 지상화되면 감북동이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는 주민의 바람대로 동남로 연결도로가 지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감북-01번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하며, 도로 상태가 노후돼 주민들에게서 겪는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무나리 진입로 공사가 완

료되면 배차간격이 개선돼 보다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마을버스가 도착시간을 지속적으로 어긴다면 패널티를 주는 등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감북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감북동은 하남의 관문이자 얼굴인 만큼 그동안 인내해 왔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하남 최고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추진단은 지난 22일 시청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유관 부서 담당자와 광주시체육회,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해 유치추진단 업무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광주시의 대회 유치 의지를 피력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숙박, 외식, 교통, ESG 실천 계획 등 분야별 담당업무를 배분하고 협업을 도모했다.

아울러, 유치추진단은 유치 분위기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결의대회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의 성공적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범상/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 191명 1억7천만원 혜택받아

지난해 7~12월 1인당 평균 지급일수 19일·지급금액 89만원

지난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안양시 취업자 중 191명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1억 70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중 191명이 지급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원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



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 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인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 뿐 아니라 안양 소재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이 아픈면 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청송군의회는 군민과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일하며 섬기는
청송군의회
CheongSong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청송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cs.go.kr>

안산시 "읽고 싶은 책, 동네서점에서 바로 빌려보세요"

안산시는 시민의 독서생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서점과 협력해 2월 1일부터 '2024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이 읽고 싶은 도서가 도서관에 없는 경우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읽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23년 4,072명이 6,297권의 도서를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통해 이용했다.

해당 서비스는 안산시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지정된 서점에서 1인당 월 2권씩 14일간(1회 7일간 연장가능) 대출이 가능하다.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의 '지역서점 바로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지역서점 확인 및 희망도서를 신청해 승인되면 회원증을 지참해 해당 서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도서는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도서관으로 납품되어 추후 도서관에서

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서점은 대동서점(사동점·중앙점), 안산문고, 원곡서점, 한가람문고, 희망서적, (마을상점)생활관, 난나책방으로 총 8곳이다.

김미정 중앙도서관장은 "시민들에게 도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 침체된 동네서점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전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1억 3천 6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완화에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

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천 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천997억 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 7천 명에서 2023년 10만 7천 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천 여 명이 증가한 11만 1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박종배/기자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 가구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비등 지원 제도 시행 25년 만에 역대 인상 - 약 10만 명 신규 혜택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로 한 번 더 늘려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전년 대비 2% 인상되어 월 71만 3천 원(14.4%)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

순천시 창업연당,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자본 창업하기' 특강 개최

순천시는 오는 29일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청년창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자본 창업하기' 특강을 진행한다.

창업연당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자본 창업하기' 특강은 ▲2024 창업지원사업 핵심 포인트, ▲직장인·소상공인 합격 비결, ▲탈락하는 사업계획서 공통점 3가지, ▲떨어지지 않는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무자본 창업으로 역대매출 사업체 만드는 로드맵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을 통해 2024년 정부지원사업 마감 전 청년창업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특강은 '밀레니얼머니스쿨' 신희은 대표가 강의자로 나선다. 신희은 대표는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의 저자이자 전 머니투데이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다수 합격한 이력이 있는 선배 창업가이다.

이런 특강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창업연당 관계자는 “청년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은 예비, 초기창업가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창업기업들의 성공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올해 3조 7,12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선정된 기업이 순천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업연당은 2020년 5월 조례동에서 개소해 작년 11월 풍덕동으로 이전했고, 지금까지 35개 기업을 보육했으며 약 500명의 창업자가 창업연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2024년부터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시 직

이승준/기자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자본 창업하기 특강

2024. 1. 29. (월) 14:00-17:30 생태비즈니스센터 3층 컨퍼런스홀

신희은 대표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의 저자이자 전 머니투데이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다수 합격한 이력이 있는 선배 창업가이다.

청년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은 예비, 초기창업가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창업기업들의 성공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올해 3조 7,12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선정된 기업이 순천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

신청 및 문의

신청: 061-710-1234

문의: 061-710-1234

함평군, 2024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남 함평군이 지난 22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방식, 작년과 달라진 점 및 회계 정산 교육 등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어진 전남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정책실장이 사업 설명을 진행한 가운데 2개 마을의 돌봄공동체와 12개 마을의 공기빛깔 마을공동체가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씨앗, 새싹, 열매 단계에 따라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이달 31일까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일자리공동체팀에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기여도가 큰 만큼,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힘들 땀 잠시 쉬어가세요” 나주시, 이동노동자 무인 쉼터 운영

평일 10~19시 시범운영, '무인 시스템' 사전 지문등록 필수

대리운전,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등을 하는 나주시역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공간이 마련돼 강추위 속 고된 노동으로 휴식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한 이동노동자 쉼터(힘이나주)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빛가람동 지역 상가 임차 공모를 통해 지정·조성됐다.

나주시 상야4길 22 빛가람동 대양스퀘어가든 1층 154호(노브랜드 매장 뒤편)에 위치해있다.

쉼터는 총 125m²(약 38평) 규모로 휴게실, 남·여 수면실, 교육 프로그램 실 등이 있다.

여기에 헬멧 건조기, 라커룸, 냉난방기, TV,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강관리 기기 등을 갖춰 노동자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쉼터는 최첨단 IoT시설관리시스템이 적용된 무인 체계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조명, 전자기기 원격 제어뿐만 아니

라 지문 인식 기반의 출입 관리가 가능해져 관리 효율성은 물론 유지비 절감 효과와 사용자 이용 편의를 더했다.

운영시간은 월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일 9시간이지만 전체 노동자 지문등록 추세에 따라 운영시간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사용을 위해선 사전 지문등록이 필요하다.

지문등록은 관리자 근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쉼터에선 노동자 휴식뿐만 아니라 분기별 맞춤형 생활·법률 상담,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쉼터 개소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인 이동 노동자 복지 강화와 건강증진, 자존감 향상을 위한 쉼터 조성을 이뤘다”며 “쉼터가 휴식은 물론 교통·금융분야 지식 공유, 건강한 노동 활동을 영위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관리에 힘써가겠다”고 전했다.

나주시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202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도시브랜드 부문- 피어나다 남원

남원시가 '202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남원시 도시브랜드 '피어나다 남원'이 소비자 직접 평가와 전문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도시브랜드 부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남원시 도시브랜드 '피어나다 남원'

은 남원 출신 김병중 화백의 화환상수를 모티브로 남원이 가진 문학적·예술적·산업적 가능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피어나는 이미지를 잘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도시브랜드 선정과정에서 이·통장, 청소년 등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도시브랜드 '피어나다 남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경관·공공디자인·도

시녹화 등을 통합한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도시로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남원시 도시브랜드가 명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다가오는 제94회 춘향제와 2024 남원세계드론제전의 성공적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대상자 모집

디지털 기기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음달 29일까지 선착순 모집



진도군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스마트주문(오더), 디지털메뉴판(메뉴보드), 기타리판(웨이팅보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기술과 운용 교육

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 영업하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도입할 디지털 기술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을 선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사업참여 신청은 2월 29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내 대설경보 발표에 재대본 비상2단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2시 정음, 순창에 이어 4시 40분 부안, 김제 4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발표(4시 40분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추가로 6시 20분 기점으로 고창까지 대설경보가 확대돼 도내 5개 시군으로 대설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강설 및 한파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내륙 깊이 유입되면서 23일 오전부터 차차 눈이 전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어, 24일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서부 및 순창 지역은 5~15cm(많은곳 20cm 이상)이며, 그 외 지역은 3~8cm 눈이 내릴 것으로 많은 눈으로 인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유의 및 차량 이동시 교통상황 사전 확인, 월동장비 구비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 파실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고갯길과 출퇴근길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 등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의 전화·방문으로 안부확인 실시하도록 했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는 "한파 취약계층 관리 강화, 계량기 등 동파 피해 복구 철저, 선제적 도로통제 실시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광주광역시 자동차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시계획, 주요시설간 물흐르듯 도보 연결 인상적

철로·화물창고 등 역사유산, 민관 협력으로 관광명소화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도시정책 현장시찰단이 지난 20일 일본 요코하마를 찾아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에 나섰다. 또 근대역사문화유산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

강 시장 등 현장시찰단은 이날 요코하마 철도역과 주요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보도, 넓은 보행로,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와 철길·창고 등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사례 등을 둘러봤다.

현장시찰단은 사쿠라키초역 → 요코하마 시청사 → 옛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 → 기타나카 브릭 → 니혼마루 메모리얼파크 → 미나토미라이 자동차보도(무빙워크) → 랜드마크타워&프라자 → 도크야드가든 → 그랜드물공원 → 린코파크 → 수변공원 → 아카렌가 창고 → 조노하나파크 →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3시간 가량을 도보로 직접 이동하며 요코하마의 보행공간 특징을 탐색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보행 중심 설계, 광주신세계 확장 및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문제 해결,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활용방안 등에 주목할 수 있는 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탐방에는 윤장식 요코하마 국립대학교수가 동행해 요코하마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1859년 일본 최초로 개항한 요코하마는 1980년대까지 항만무역도시로 성장했으나, 조선소 이전 등으로 공업도시로서의 힘을 잃었다. 이후 도심 공동화(베드타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오피스·쇼핑문화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 '유메하마 2010 플랜' 등 장기 도시

계획을 통해 요코하마의 도시 자립성을 강화, 도쿄 수도권의 업무기능을 분담하고 슬럼화된 기존 항만을 공원·녹지 공간으로 정비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현장시찰단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건물과 길의 연결 사례에 주목했다.

먼저 사쿠라키초역과 랜드마크타워, 쇼핑센터를 거쳐 요코하마시청까지 복층도로로 설계된 보행공간을 확인했다. 보행 공간과 자동차 공간을 분리하는 등 인간중심의 도시 조성은 물론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업무·상업 복합공간을 살펴봤다. 현장시찰단은 이곳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성공한 점을 눈여겨봤다.

특히 과거 공업도시로서의 역사 보존을 위해 철로 구간을 개항의 역사를 담은 '개항의 길', 화물창고를 이벤트 홀·상업시설이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원형보존·개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조선소·은행 건축물 일부 등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개발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진화했다.

윤장식 교수는 "요코하마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중심'의 도시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한 신도시 모델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의 디자인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살려 해변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낸 점도 주목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요코하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이자,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 즉 인간중심의 도시설계로 보행의 편의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로 진화했다"며 "복합적인 도시계획 비전을 세워 풍부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완도해경서장, 눈보라 치는 기상에도 항포구 등 치안현장 점검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 및 항포구 안전시설물 확인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연이은 기상악화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남군 소재 어란·구성항 선착장 및 관할 상주항 출장소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상 불량에 따른 주요 항포구 어선 혼출 등 고박상태를 확인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근무하는 출장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 서장은 직접 관내 전 해상 풍랑주의보 및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어란·구성항 및 도선 선착장을 방문, 정박어선 고박상태 및 이용객들의 미끄럼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선착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어란·구성항 출장소를 방문해

△관할구역 지리적 특성 확인 △출장소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청사 환경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서장은 "기상악화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출항통제 및 항포구 정박어선 안전관리 강화하는 한편, 기상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목포시, 장애인의 환한 웃음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자원정책 마련

목포시가 생활 속에서 스며든 안전과 편리함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목포시 인구 21만 4,156명 중 등록장애인은 13,637명으로, 전체 시민 중 약 6.4%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직접영향을 받는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 한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돌봄, 장애인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올 한해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소득·일자리, 장애인돌봄 지원!

목포시는 지난 한해 소득·일자리 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일자리 확충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총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행정도우미 63명, 주차제도, 청소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383명, 특화형일자리 19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요양보호사 보조활동), 전담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 38명(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또한, 장애인돌봄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총 2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만 6

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1,00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60시간 ~ 480시간까지 제공했다.

▲장애인의 안전된 삶 및 사회참여 지원 교육 제공!

목포시는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썼다. 대표적인 장애인 생활안정 제도인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40만 3,180원까지 지급했다.

현재 시는 중증장애인 2,286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 도내서 2번째로 많은 인원수로 중증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률(90.44%)은 전국 1위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중 만 18세 이상인자는 장애수당(3~6만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장애아동수당(3~22만원)을 지원한다.

목포시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총 3,363명(수급자 2,374명·차상위 989명)이며, 수급희망 이력관리·신규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신청 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서부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일상생활 훈련, 사회성 증진, 건강관리, 의사소통 증진 등 성인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사회적 자립생활지원과 평생 학습 교육 기회 확대 및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 사회참여 지원 확대!

목포시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 목포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최적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목포시의료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특화장비를 구입해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목포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의 분관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을 추진하기 위해 35억원 예산을 투입해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이용과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박홍배 목포시장은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목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동강대학교와 복지 분야 관학 업무 협약 체결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협력



보성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동강대학교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관·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과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와 보건(건강), 복지 등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양 기관의 지원과 정보 상호 협력, ▲학생 홍보기획단 조직 및 운영 지원, ▲건강정책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 협력,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기타 다양한 영역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동강대학교는 학생 홍보기획단을 구성·운영해 보성군에서 시행하고 있

는 정책을 알리고, 의료취약지역 군민을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강대학교 이민숙 총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연계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성군 보건복지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의 연계 강화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구례군, 친환경 흙살리기 실천 위한 유용 미생물 연중 공급

유용 미생물 6종 연간 400톤 생산·공급 예정

전남 구례군은 친환경 흙 살리기 실천을 위해 용방면에 소재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의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BM활성수 등 총 6종의 유용 미생물을 자체 생산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050 농가에 390톤의 미생물을 공급해 토양 환경 개선, 축사 악취저감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적극 지원했으며, 특히 자동 공급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유용 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군민에게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군민은 매주 목요일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유용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유용 미생물 교육은 1. 25 13시 30분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친환경 흙살리기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본이 되는 유용 미생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좋은 품질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경상북도 신임 의용소방대장 82명 임명장 수여

경북 제일의 봉사단체로 도민 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기대

경상북도는 23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게 될 신임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의용소방대장 82명은 그간 각종 재난 현장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대원들의 신망을 얻어 지역 소방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 이들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기 3년 동안 도내 각 지역에서 화재진압 보조, 안전관리, 긴급구호, 자원봉사, 생활안전구조활동 및 화재 예방 홍보 등 다양

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임 김정훈 포항북부소방서 죽도전문의용소방대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동료 대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간의 단합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공사업체 노트북 무단 반입 적발 사전 조치로 차단해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3일, 보안 점검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노트북 무단 반입을 적발하고, 그 즉시 규정에 따른 반입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공사업체의 무단 반입된 노트북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한수원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없었던 이유 등으로 한수원 내부 자료 등 특이사항에 대한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울원자력본부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한 협력사 직원에 대해 이날부터 즉각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러한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협력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와더불어, PC 반입 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서 철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전파했다.

한울본부관계자는 "항후, 한울본부는 한수원 내부는 물론, 협력업체들의 보안 의식을 높여 두 번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보안의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살펴본 결과, 이번 사건은 한울본부의 철저한 보안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신속한 차단과 조치가 이뤄져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윤근수/기자



'부산시·교육청·16개구군·지역대학,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추진

공공돌봄, 긴급돌봄 확대, 24시간 긴급돌봄 실시, 부산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돌봄시설 확충, 늘봄학교의 인력 지원 등 박형준 시장,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부모가 자녀 돌보듯 우리 부산의 아이들을 공공이 키울 것"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아이들을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그간 제도적·행정적으로 '돌봄'과 '교육'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로 인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물론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두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돌봄'과 '교육'의 경계 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한데 모아 그 시작을 함께하게 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와 시교육청, 자치구·군 및 대학이 함께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고자 부산형 통합 늘봄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지역대학이 함께 준비한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로, 전국 최초의 부산형 돌봄 및 교육 정책 브랜드다.

영유아(0~5세) 대상으로는 ①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② 출생부터 책임돌봄, 부모 부담 제로(ZERO) ③우리 아이 적성 발굴,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세 가지 목표를 추진된다.

초등학생(6~11세) 대상으로는 ①돌봄시설 대폭 확대로 '초1~3학년 희망 학생 전원 수용' ②학과 연계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③언제든 긴급돌봄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④교원과 교직원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① 공공돌봄 및 긴급돌봄 확대를 통

해 언제·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공공돌봄을 확대해 나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부모님의 귀가 시간까지 추가 보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와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돌봄 희망 학생을 100% 수용함으로써,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가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평일 자정까지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365 열린 시간제 보육·돌봄' 기관을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 이후 영아들을 위한 집중 보육을 위한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도 강화해 나간다. 지원 기간을 기존 월령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영영아반은 350개 반에서 40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②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책임돌봄 정책을 시행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가정양육 중 부모가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시간제 보육반을 100개 반에서 194개 반으로 늘린다. 비용(최대 12만 원)은 모두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육하면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월 10만 원 상당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그리고 365 열린시간제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부모부담 제로(ZERO)로 양육 부담을 줄인다.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부산의 15만7천 다자녀 가정 중 초·중·고 학생아동이 포함된 12만5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연 1회 30만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연 1회 50만 원의 동백전 포인트가 지

급된다.

③ 아이들의 적성 발굴을 위한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에서 추진하는 놀이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발레, 국궁, 카누 등 지역의 자원과 대학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형 돌봄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감성을 키우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안심보육 연장반 특화프로그램과 출생 후 영영아의 애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이며, 독박 육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부모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미취학 아동 전문양육상담 우리아이 보육맘 및 육아친화마을 조성 확대 등을 통해 맞벌이 또는 가정양육이라도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놀이체험 중심 방과후 과정을 강화해 '놀이배움터' 운영을 확대하며, 특수학급 5개 학급을 신설 운영하며, 기존에 교육과정에만 포함된 '감성 문화예술체험교육'을 확대해 방과후 과정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 유치원에서 '방과 후 만나'는 자연친화 숲생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④ 초1~3학년을 대상, 돌봄시설을 대폭 확대해 시설 이용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하고자 한다.

학교 돌봄 시설을 확충해 돌봄교실 희망을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전원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1학년 전원을 우선 수용하며, 2025년도에는 3학년까지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100% 수용

해 나갈 계획이다.

⑤ 학습과 연계한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2시간 무료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초1~3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팽귄 영어말하기, 부산말하는영어 1.1.1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공하며, 초4~6학년 대상으로는 대학 및 지역기관의 우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특화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⑥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 언제든지 긴급돌봄이 필요할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서관, 마을회관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올해 30곳으로 확대 운영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언제든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시민의 보육과 교육에 직접 체감되는 부산발 정책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부모가 내 자녀를 돌보듯 애지중지 우리 부산의 아이들을 공공이 키우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군, 민선8기 군수 공약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군민과 '함께 더 멀리', 희망 영양

영양군은 지난 23일, 군수와 군민 공약 이행평가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수 공약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총괄 보고를 비롯해 공약사업 각각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기 내 사업 완료를 위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2월 말 현재 공약 이행률

은 84개 공약사업 중 사업 완료 23건, 정상 추진 60건, 공약 이행률은 27.3%로 나타났다.

영양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살맛나는 부자농촌 △함께하는 화합군정 △품격높은 전통문화 △공유하는 생태관광 △행복나눔 희망복지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84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2023년 하반기 공약완료 건은 5건

으로 △양수발전소 유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 △현1리수방장 숲속탐방길 설치, △보조축주장 증축 및 개·보수, △국장 책임제로 군민 중심 조직 운영 건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약 이행상황 관리와 추진실적 수시 점검 등으로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조기검진' 실시로 검진사각지대 해소

윤경희 청송군수,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검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발병의 위험이 높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치매안심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3일부터 산남지역을 시작으로 2월까지 관내 약 224개의 경로당을 모두 순회하며 차례대로 시행중이다.

치매조기검진 절차는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은 치매예방교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강화교실,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초기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목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그냥 지나칠 위험이 높아 주기적인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청송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검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2024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확정!

8.24.(토) ~ 8.30.(금) 7일간, 구미 등 4개시 7개경기장에서 50개직종 열띤 경쟁 도내 축제와 연계한 도내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도는 23일 '2024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신청을 했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확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수 숙련기술자 발굴과 사기진작을 목표로 지난 1966년 제1회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인 축제다.

2023년 제58회 충청남도 대회까지 약 8만 명의 참가자와 총 10,215명의 입상자를 배출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기술자 양성의 매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올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도내 구미, 안동 등 4개 시(市) 7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선수, 지도 교사, 대회 관계자 등 1만 8천여 명이 참가해 산업용 드론 제어 등 총 50개 직종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선보인다.

경북도는 1977년, 1993년, 2008년 대회 이후 16년 만에 네 번째로 대회를 유치했다.

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홍보 등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5회, 준우승 2회 등 최다 우승과 준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국대회 메달 입상자 1,260명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34명의 배출 기록도 갖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자는 메달, 상장과 최대 1,000만 원의 시상금, 입상 직종 산업기사 자격 실기시험 면제, 상성전자 입사 등 취업 기회 부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출전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경상북도는 23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 교육청, 8개 마이스터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회 준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폐회식, 부대행사 등 대회 운영 방향 협의 및 경기장 기반 시설 설치, 유관기관 협조 지원체계 구축, 실무추진단(TF팀)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한, 도는 8월 중 개최되는 지역 축



제 및 다양한 각종 행사와 연계 추진해 도내 풍부한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대회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담당자 ☎054-880-2683) 또는 경상북도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054-840-3024)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 열린다

2월 25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동래읍성지 복문광장

부산 동래구는 오는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동래읍성지 복문광장(부산 동래구 복천동 1번지)에서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는 (사)부산민속연보존회 주관으로 전통연 교육 및 만들기(초등부 해당), 연날리기 대회, 창작연날리기 시연으로 진행된다.

연날리기 대회는 초등부(3~6학년 80명, 2011.1.1~2014.12.31), 일반부(성인 80명, 2006.1.1.이전 출생자)로 나눠 펼쳐진다. 초등부는 전통연을 현장에서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고 일반부는 개인연을 지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초등부는 시간 내 높이 멀리 날리기, 일반부는 연 싸움(연줄 끊기)으로 대회 순위를 판정한다. 창작연날리기 시연은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유산 지연장과 이수자 2명이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월 15일까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일반부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초등부 5000원, 일반부 1만 원이다. 주차는 북천박물관 주차장(무료), 동래사적공원 공영주차장(1시간 600원, 종일 2400원)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동래구는 2월 15일까지 대회 행사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를 통해 모집한다. 봉사활동 4시간이 인정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는 연날리기 경쟁 부문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연을 만들고 연날리기를 관람하며 잊혀가는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의 과감한 대형마트 규제개혁'

공휴일 의무휴업 10여 년 만에 전면 폐지 이끌어내

시민편의 및 유명무실 규제개혁 성공사례 전국 평일 전환 속도날 듯 지난해 2월 특·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

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은 갠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의와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1.22(월)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10일(금)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

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의 역대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점 논의 됐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착공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통영 만들기 위해 노력, 2024년 8월 개소 예정

통영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천동 616-1번지에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사업비 96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시비 510백만원)으로 지상1층 규모(연면적 270㎡)로 7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상당실과 심리검사실, 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될 통영시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설치 후 인근 고성군과 아동인구수 대비 사업비를 공동 분담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시 관할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의 접근성이 낮아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학대 초기 상황에 신속한 개입 및 사후관리 어려움이 해소되어 아동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로 인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업무가 면밀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윤준/기자



영덕군,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영덕군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자발적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 영덕시장 일대에서 제326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영덕군 안전재난과 김희대 과장은 "이번 캠페인에는 영덕군을 비롯해 영덕소방서, 영덕군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덕시장을 찾은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산불 예방, 안전신문고 제도, 군민안전보험, 아파트 화재 대처요령과 겨울철 화재 행동 요령 등을 홍보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난 16일 관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비상행동 수칙을 함께 알리기도 했다.

영덕군 안전재난과 김희대 과장은 "안전 문화와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주낙영 시장, 갑진년 첫 시작 더 나은 경주조성 주문

첫 확대간부회의 주제, 내년 국비확보 총력과 올해 준공예정 사업 완벽 추진, 변화하는 청사진 제공 설 명절 공정한 업무수행과 총선 관련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재강조경북도의 초저출산 정책 연계한 실현가능한 인구유입·증가 대응 강구 지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앞천홀에서 갑진년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서장들로부터 현안 및 올해 역점사항을 보고 받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더 큰 경주 조성에 힘을 다 해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먼저, 부시장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책임감을 갖고 신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엄격 당부했다.

아울러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도시에 걸맞게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 하면서,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경주시 조직문화 개선 행동수칙' 5개 수칙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공감해 줄 것과 특히 4월 총선 관련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재강조 했다.

또한 시 알릴특인 '알짜배기 경주소식'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시책, 각종 생활정보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수시로 전파하여 정보전달 누락, 수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지난 연말 정기인사, 조직개편에 따라 철저한 인수인계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부서별 신활력 사업 발굴, 제2급장교 완전개통 등 올해 준공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완력을 기해 시민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

부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초저출산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 맞는 인구 유입·증가 대응책을 강구할 것과 야간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보안등 설치,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승강장 안내도우미 배치 등을 적극 검토 지시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관리와 연휴 중 생활쓰레기 수거, 당번 약국 및 당직 의료기관 운영, 주요도로 환경정비를 비롯해 시민 불편 사항 즉시 해결 등 시민이 행복한 고유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종합상황실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경북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환경 분야 공동연구 협약 체결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와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경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환경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간 장점을 상호 공유하며,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구에서 유발될 수 있는 수질, 토양, 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연구 인력 상호 교류 ▲ 연구 자료 및 결과 공유 ▲ 기관별 보유 장비 상호 활용 ▲ 공동 연구발표 ▲ 국가 용역사업 공동 수행 등 광범위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및 신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분석기

술” 주제로 RIST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RIST는 환경에너지연구소, 재료공정연구소, 융합혁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환경, 안전보건, 차세대 핵심 소재 및 미래 소재 고도 분석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지만, 신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현황 파악 및 분석기술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건물과 주변 풍경.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줄이어



청송군청 건물 전경.

(재)포항 청송군향우회 회장 황가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청송군 안덕면이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청송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이 연일 줄을 잇고 있다.

재포항 청송군향우회는 지난 22일 청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안덕면 이장협의회는 100만원을 기탁했다.

재포항 청송군향우회는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등 청송군에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가원 회장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있지만 이번 기탁을 통해 청송군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송군 안덕면이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청송군에 전달했

며, 안덕면이장협의회는 해마다 연말 연시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여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장협의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지역에 나눔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뜻깊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재포항향우회에 기부금 기탁에 대해 “타지에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 발굴

22일 보고회 개최...생활공감 및 저비용·고효율 사업 모색

남해군은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력을 확보하고 군민이 더 나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남해군은 22일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생활/안전 등 4개 분야, 총 39개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군민 불편사항 즉각 개선 사업,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등 ‘저비용·고효율’과 ‘생활·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화상으로 만나는 군민행복법률상담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소형형제가전 수거함 설치, △상수도관 누수탐사 등 적은 예산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보고된 사업들은 관련 법과 타

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월에는 추가 사업 발굴 보고회도 열릴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장충남 군수는 사업 추진 방향을 일일이 점검하는 한편, “부서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군민행복을 위한 시책은 부족함 없이 시행하고 군민들이 작은 변화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준/기자



남해군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 발굴 보고회 모습.

상주시, 2024년 과수발전협의회 개최

98억 투입, FTA기금사업 추진으로 과수생산기반 조성



상주시는 1월 22일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과수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 및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공 업체 선정 및 세부 사업 단계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김동현/기자

를 국비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주시는 올해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20개 세부 사업에 총 사업비 98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경북도 내 최대 규모이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통해 상주시의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23~29일, 42개 부서 시책 추진전략과 현안사업 보고 본예산1조 원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영주건설’ 논의

영주시가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본예산1조 원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도약하는 영주건설’을 위한 사업 전략 수립에 나섰다.

보고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강당에서 개최되며,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등 그룹별로 진행된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임기의 반란점을 도는 해인 만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추진 방향 및 예산 성과 등에 토론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영주담 준공, SK스페셜티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재지정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공유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도약하는 영주건설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영주담 주변 개발,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착공, 혁신농업도시 기반 확립 등 관광과 경제의

기반을 다져 인구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영주발전의 전환점이 될 본예산1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각 부서는 시의 미래100년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업무 공유와 끊임없는 고민으로 시민이 영주발전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영주시 박남서 시장이 업무보고회 중 발언하고 있다.



봉화군에서 실시된 설 명절 전 상품 점검 모습.

봉화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합동단속 나서

선물용·제수용 식육가공품 대상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차단

봉화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로 찾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영양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6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4년 학교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 선정

의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4년 학교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81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학교우유급식 사업비를 137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지난 ‘23년부터 지침이 개정되어 무상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축소된 바 있으며,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우유급식 확대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공모사업은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당

초 무상지원 대상자 외에 무상우유급식 지원이 필요한 학생 611명에게도 한 해 동안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관내 학생 중 1,037명이 250일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학교우유급식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우유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낙농산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김주수 군수가 학교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김안면 천치지구, 예안면 인계지구, 임동면 사월지구 등 관내 14개 지역에 384억 원의 예산으로 총 140.4km의 상수도관을 신설하는 한편, 물수요량 증가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도 착수하는 등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칼라맨홀 뚜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 조치에도 나선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해 사업비 2



상수도관 신설 현장 모습.

윤근수/기자

영등포구, 설 식품 위생 관리 총력... 명절 대비 성수식품 집중 점검

민·관 합동점검 및 타자치구와 교차점검 추진...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영등포구가 지난 15일부터 5일간, 설 명절 대비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제수용·선물용 식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3년간 미점검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들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구는 ▲식품제조·가공

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각 업소에 맞게 사항들을 세밀화하여 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위생 점검과 동시에 ▲식품원료 확인,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가한 경과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여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 다양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또한, 설 다소비 식품들인 떡, 한과,

두부, 면류 등의 '가공식품'과 전, 튀김, 식혜 등의 '조리식품'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병행 수거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했으며 그 외 점검 대상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영업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수거식품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위반 제품 발견 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고, 서울시 내 타자치구와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설 명절 동안 구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식품 관련 업소들이 정확한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준수 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우리가 해결하는 동네 문제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024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참여 주민 모임 및 단체 모집

서울시 성북구는 성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해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안전, 소통,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마을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전체 지원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참여모임 당 80만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거주지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성북구인 주민 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회 등이다. 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계획서 및 참여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신규 모임 활동

'이웃 만들기' ▲마을공동체 연속 사업 수행 활동 '우리마을 만들기' ▲주민이용시설 등 공동체 공간 활동 지원 '공동체공간 활성화'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신청 사업의 필요성, 창의성,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연계성 등을 주로 심사하게 되며, 최종 선정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업 분야별 자세한 지원 조건 및 내용과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네이버폼으로 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에 활력이 넘치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행복이화카페 '빵 사이에 낀 과일' 성공리에 안착

지역 유산 잇고 주민 취업 기회 제공하며 지역 상권에 도움 주는 성공 사례 기대



서대문구는 지난달 22일 직영 매장으로 문을 연 행복이화카페 '빵 사이에 낀 과일'(이화여대5길 35)이 개업 한 달여를 지나며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1997년 문을 연 후 추억의 맛 집으로 인기를 모았던 '빵 사이에 낀 과일'이 영업을 종료한 소식을 접하고 '이대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장소를 옮겨 직영을 시작했다.

가격은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대표 메뉴인 샌드위치가 3,500원,

커피가 2,500원,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메뉴가 5,000원이다.

'빵 사이에 낀 과일'은 하루 평균 샌드위치를 150개 이상 판매하고 있다. 추가로 홍제천 카페 '폭포'를 통해서도 현재 하루 평균 30개 이상 판매하고 있으며 봄부터는 이를 1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는 새로운 메뉴도 추가할 예정이며 식음료 판매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자 시제품 홍보와 지역 예술가 작품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매장 직영이 지역 유산을 잇고 주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희 '빵 사이에 낀 과일' 전 대표는 "학생들의 편안한 안식처란 자부심으로 지켜온 가게가 서대문구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돼 행복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운영 노하우와 레시피(조리법) 등을 빠짐없이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안전 등곳길로 탈바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변동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금천구가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 27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변 통학로가 대상이다.

구는 사업시행에 앞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2차에 걸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

1차 자체 현장 조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사업 대상지와 필요 예산을 파악하고 확보했다. 2차로 서울시, 금천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 한국도로시설안전협회 등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해 통학로 교통사각지역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시인성을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 노란색 횡단보도 ▲ 옐로카펫 ▲ 발광형 교통표지판 ▲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 바닥 신호등 ▲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 신호등 주변 광고를 부착방지 시설 ▲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 ▲ 안전펜스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구는 추가로 보행신호등 음성보조장치 및 안전유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예산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라며 "운전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다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강원, KTC와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전략적 협력 강화

23년 국비 확보,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방안 협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 등 KTC 관계자와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국비를 확보한,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의 성공적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KTC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KTC는 전국 지역센터(본원 군포)에서 시험·평가·인증 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의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도와주는 국내 대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면담에서, KTC는 강원형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KTC 차원의 투자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 온 인적·물적 전략자산을 강원



권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KTC는 국내 유일의 One-stop 검증센터를 통해 강원권 반도체 기업 유치와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평가장비 추가 증설 및 상주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해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4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4대 전략을 통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강원권 연결·확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와 관련, 지난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를 포함한 3대 반도체 테스트베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는 강원권의 반도체 경쟁력과 추진의지를 확인한 KTC에서 강원 자치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및 신규부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테스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KTC는 반도체 설계-단품-모듈-시스템 전주기를 한곳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강원자치도 및 원주시와

함께 센터 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사업에는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총 309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 일원에 약 35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보유한 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대상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테스트베드 국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면서, 'KTC가 강원도에 잘 자리 잡아, 도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외 기업의 강원권 투자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일 KTC원장은 "미래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추후 강원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AI반도체, 센서 등에 평가인프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강원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음봉면, 미래성장동력 첨단산업 유치할 것"

22일 '2024 상반기 음봉면 열린간담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은 22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상반기 열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영 시의회 의장과 홍순철 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박경귀 시장은 "음봉면은 아산시가 모시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탕정2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고품격 주거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면서 "이런 큰 비전 외에 다양한 현안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주민들은 ▲버스정류장 비가림 시설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 ▲동암2리 등 클린하우스 설치 ▲음봉농협 앞 과속방지턱 설치 ▲쌍용 보건소 앞, 원남리 하나마이크론 앞 회전교차로 조성 ▲산동1리 마을회관 보수 ▲산동사거리 도로 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요양병원 유

치 ▲국지도 70호 도로 파손 부분 개보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홀→18홀 규모 확장 ▲매곡천 상류 유속 회복보수 ▲이순신 장군 묘소 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등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하며, 그 과정에서 음봉지역에 대한 시정 구상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탕정2지구에 포함된 음봉면 지역에 R&D집적지구를 만들 예정이다. 판교처럼 AI·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이곳을 잇는 628번 도로는 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이 도로 북단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마을중흥개발사업이 이뤄졌던 음봉면이 올해 8월 시로 귀속되면, 운전치유센터를 설치해 아산온천을 치유온천으로 만들겠다"며 "온천의 치료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치유욕조 등 각종 시험과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들어 음봉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68건(2022년 하반기 25건, 2023년 상반기 22건, 2023년 하반기 21건) 중 ▲산동3리 마중택시 운행 요청 ▲버스노선 확대 조정 ▲백의중군 길 고층 및 정비건의 ▲경로당 난방비 차등 또는 추가 지원 ▲폐곡산성, 물탄산성 권역 정비 ▲연암산 정상 정자 설치 ▲연세유업 아산공장 약취 해소 등 19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서천특화시장 복구·상인 일상 회복 "총력 지원"

김태흠 지사, 23일 화재 복구 대응 현장서 상인들 만나 긴급 지원 대책 밝혀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재해 복구 및 상인 일상 회복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아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김 지사는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 뒤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즉시 상가 당 200만 원씩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더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 피해 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상인 여러분들이 설명절 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서천군의 준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촉행사 등을 개최 지원하고, 소비자 단체 협조를 받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중앙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천특화시장 건물 신축도 즉시 추진한다.

김 지사는 "새롭게 시장을 신축하기 위해선 공사 규모가 커서 입찰을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장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속한 시장 건물 신축 추진을 위해 잔불이 정리 되는데도, 입찰 등의 문제로 시간 끌지 말고 철거 작업을 실시하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계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한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 달라"는 뜻을 재차 전했다.

상인들에게는 "새롭게 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손님 동선 등을 감안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국 최고 수산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에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도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점포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지원하고, 지방세 및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완진됐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간 시장 내 설치된 소화기(자동 화재 감지·신고장치)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9분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통제단을 가동했다.

투입 인력은 361명, 장비는 45대다.

이날 불로 서천특화시장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은 2004년 9월 개설했다.

건물은 2층짜리 5개 동에 연면적 7018㎡ 규모이며, 총 292개 점포에 295명이 종사 중이다.

최정근/기자

원주시 어린이집 영유아 유제품 지원 사업 만족도 95.5%

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의 95% 이상 만족

원주시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의 95% 이상이 원주시 어린이집 영유아 유제품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유제품)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교직원 221명, 학부모 538명 등 총 759명이 참여했으며, 교직원 96%, 학부모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해당 사업이 어린이집 교직

원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 "성장기에 필요한 유제품을 어린이집에서도 보충해 주니 너무 좋았다."며 어린이집의 유제품 급식 지원에 만족감을 보였다.

'2023년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유제품)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식생활 개선, 건강한 성장 발육, 어린이집 급식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1인당 1일 1개의

원유 100ml 이상을 지원하는 원주시 대표 급식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원주시는 매일 어린이집에 지역 우수농산물 '토토미'를 급식용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장상 원주시장은 "원주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제품과 지역 우수농산물 토토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대외기관 평가 11개 분야 표창 수상

태백시는 2023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7개 부처 11개 분야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2023년 정부 부처 주관 기관평가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을 비롯하여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부 수상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평가 (나)등

급,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지자체 최우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분야) 우수상,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 우수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는 4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수상실적으로는 △2023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방세외수입 우수과제 발표 최우수, △2022회계연도 체납액 정리 우수, △2023년 지방세 연찬회 우수과제 평가 장려상이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에서 주관한 제9회 2023 올해의 SNS(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_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태백시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였다"며, "2024년도 시민과 태백시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청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청주시 일원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새해를 맞이해 민생현장의 중심에서 직접 소통함으로써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내 따뜻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김 지사는 수곡동에 위치한 사랑의올타리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필진)에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올타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5여명이 이용하고, 돌봄, 급간식 제공, 기초학습, 미술, 체육 등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미평동에 위치한 미평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실, 놀이터 등 시설을 돌아보며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사들은 출생률 저하로 갈수록 재원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출생률 10% 증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김 지사에게 응원과 당부

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프란치스코의 집을 찾았다.

김 지사는 이 시설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능력을 키우고, 장애를 극복하여 경쟁적인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프란치스코의 집은 화장지, 면장갑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장애인생산품 작업장이며, 56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월오동에 위치한 은빛양로원을 방문하여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 70여명을 가족과 같이 살처럼 보살피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일일이 살피고 점검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소외된 이웃을 가축처럼 돌보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심으로 일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아동, 보육,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미세먼지 꼼짝 마! 수원시가 관리한다!

저감 정책 지속 추진해 연평균 농도 개선 효과, 고농도 계절은 더욱 철저하게



은 일수는 12일에서 34일로 늘어난 반면 나뭇잎 일수는 44일에서 23일로 줄어들 정도로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처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수원시의 꾸준한 정책 추진 효과로 볼 수 있다. 수원시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369톤(2021년 기준)인데,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량 사업으로만 50.3톤을 저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적응·시민실천분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는 수원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연중 내내 꼼꼼하게, 고농도 계절엔 세심하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외출 준비의 기본이고, 어린이들이 하늘을 파랗게 색칠하는 대신 회색으로 색칠하는 것 역시 그다지 독특하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다. 마이크로미터($\mu\text{g}/\text{m}^3$)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미세먼지는 기준에 따라 PM10이 0.01mm, PM2.5가 0.0025mm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에서 작은 눈금 하나를 100개로 나눠야 하는 크기다. 이처럼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원시는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돌아본다.

◇수원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현황 '좋아짐' 수원시의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6 $\mu\text{g}/\text{m}^3$ 였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8 $\mu\text{g}/\text{m}^3$ 로 낮아졌다. 수원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23 $\mu\text{g}/\text{m}^3$, 2019년 25 $\mu\text{g}/\text{m}^3$, 2020년 21 $\mu\text{g}/\text{m}^3$, 2021년 19 $\mu\text{g}/\text{m}^3$, 2022년 18 $\mu\text{g}/\text{m}^3$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매년 수원이 조금씩 높았는데 최근 들어 차이가 줄다가 지난해에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18.4 $\mu\text{g}/\text{m}^3$)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원지역 초미세먼지 예보 관련 등급 현황도 개선됐다.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mu\text{g}/\text{m}^3$ 이하로 '좋음'인 날은 늘어나고, 36 $\mu\text{g}/\text{m}^3$ 이상 수치가 올라 '나쁨'으로 기록된 일수는 줄었다. 좋음 일수는 2015년 126일이었으나 8년이 지난 2023년은 171일이 됐다. 같은 기간 나쁨 일수는 66일에서 28일로 절반 이하로 적어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을 특별히 관리하는 '계절관리제'의 효과도 두드러진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고농도 시기(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6.5 $\mu\text{g}/\text{m}^3$ 였으나 지난해 제4차 시행 기간 평균 농도는 27 $\mu\text{g}/\text{m}^3$ 로 줄었다. 또 중

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도로변과 공업지역에 인접한 영통2·3동 일부 2.2 km^2 , 자동차 정비업소와 산업단지가 인접한 평동과 고색동 일부 1.24 km^2 , 도로변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정자3동 일부 0.59 km^2 에 3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또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를 갖춘 경로당 등 96개소를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예24기, 화성여차, 효원의 종 타종, 국공체협 등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상설 야외행사·시민실천분과를 주축으로 진행될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는 수원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연중 내내 꼼꼼하게, 고농도 계절엔 세심하게

수원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기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202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 $\mu\text{g}/\text{m}^3$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2020년 수립한 '2021~2025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담긴 2016년 대비 35%를 줄인 수치다. 내년까지 1 $\mu\text{g}/\text{m}^3$ 를 더 낮추야 한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5개 세부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평가를 실시하는 정책 기반,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자동차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대기질 정보 제공, 취약계층 보호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민건강 보호 등이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산업·수송·발전·생활 부문 배출 저감 관리와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원시는 공용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모두 말소하는 등 사전 조치를 확실히 이행했다. 지역 내 주요도로와 간선도로 총 228.4km의 청소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접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 7곳을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해 매일 청소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 기간 동안 민간이 운행하는 2천53대의 저공해 미조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운행을 제한한다. 수원시내 8곳에서 무인카메라로 운행을 단속한다. 지난해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천여 건을 단속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 240여곳에 달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 및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관리구 사업장 14개소와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을 맺어 저감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농도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를 반영해 집중관리구역 3개소

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도로변과 공업지역에 인접한 영통2·3동 일부 2.2 km^2 , 자동차 정비업소와 산업단지가 인접한 평동과 고색동 일부 1.24 km^2 , 도로변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정자3동 일부 0.59 km^2 에 3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또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를 갖춘 경로당 등 96개소를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예24기, 화성여차, 효원의 종 타종, 국공체협 등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상설 야외행사·시민실천분과를 주축으로 진행될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는 수원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연중 내내 꼼꼼하게, 고농도 계절엔 세심하게

수원시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대기환경을 실시간 측정하고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대기환경 측정소는 총 8곳에서 이뤄진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일월도서관, 선경도서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수원시청, 광고중앙공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7곳의 도시대기 측정소와 도로변 측정소 1곳(동수원사거리)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물론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 측정된다.

측정된 대기질 정보는 대기오염 전광판 11곳에 송출된다. 수원시청 앞, 세류문화길삼거리, 경기도인재개발원 앞, 서수원터미널 앞,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원천출플러스 앞,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마사회 앞, 수원역환승센터, 태장마루도서관 앞,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 앞 등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질의 실시간 현황이 표출된다. 또 45개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좋은(파랑), 보통(초록), 나쁨(노랑), 매우 나쁨(빨강) 등 미세먼지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가 나뭇 때는 우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모임이나 캠핑, 스포츠 등의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도로변, 공사장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 주변에서 지체하는 시간이나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야채 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기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실시하는데, 환경부는 '나뭇' 이상인 경우 자연환기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조리 시는 물론 조리가 끝난 이후에도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자가용 운전과 같은 대기오염 유발행위는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원시와 시민이 함께 쾌적한 수원의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삼/기자

부산시,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 위해 총력 대응 나서!

1.22. 14:00 한파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시 관련부서, 16개 구·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참석해 취약계층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집중 논의

부산시23일 부터 25일까지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23일 부산지역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7도(-7°C)며, 오는 26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취약계층 등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市) 한파 지원부서(10개)와 16개 구·군, 소방, 경찰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홀몸 어르신 등 안부확인 ▲쪽방촌·노숙인 등 복지 지원(난방용품 제공) ▲한파쉼터 운영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취약계층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등 수도관 동파 대책,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 및 보행자 낙상사고 대비 제설제 사전살포, 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홍보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오후 4시 40분 한파 대피시설 2곳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첫 번째 방문지로 노숙인 지원시설인 '부산희망당대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응급 잡자리 지원, 노숙인 현장순찰 등의 지원활동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한파 기간 노숙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취약계층 한파 대피시설인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부산진구동백부인 경로당을 방문해 난방기 작동 여부 등 실제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관내 한파쉼터 1천73곳에 대한 구·군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쉼터 운영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난방기 작동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한파쉼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한파 기간 재난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오늘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만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는 홀몸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한파 피해예방에 집중할 것이며,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행사 가능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초대된 정상과 대표단을 위한 최적의 경호·안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울산시, 설 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23일~29일, 행안부, 울산시, 구군,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점검대상 구군별 1개소, 총 5개소 선정

울산시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울산시, 구군,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점검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점검 장소는 중구 홈플러스, 남구 수암상가시장, 동구 현대예술관, 북구 모다아울렛, 울주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구군별 1개소를 선정

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 및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동작 여부 △소방시설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명절 연휴 전까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사용·출입 금지 등 응급조치 후 안전조치 결과를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마성시장, 상록수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6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1월 31일까지 점검 기간을 연장해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규진/기자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 9개 시·군은 지난 23일 11시, 경상북도교육청 옹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김재욱 칠곡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와 각 시·군 및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경북교육청 김달하 장학관님의 사회로 개식사, 국민의례, 임종식 교육감 환영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사말씀에 이어 각 시장군수 인사말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

이철우 경북도지사 - 9개 시군 기관단체장간의 협약서 서명순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오늘 협약식은 경북도청과 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자리로, 각 지역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교육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장군수 인사말씀이 이어진 후, 9개 시군 단체장 및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에 의해 사전 준비된 협약서에 각각 서명이 이뤄지면서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이어 각 시군별 단체장과 경북도지사, 경북교육감 기념사진 촬영 및 각시군 관계자 포함 기념사진 촬영을 하므로써 이날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

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완료됐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으로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력

하는 1유형, 광역시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 도-교육감이 협력하는 3유형이 있는데, 이날은 1유형인 7개 기초자치단체(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와 3유형인 2개 기초자치단체(안동, 예천)가 협력하는 것으로 됐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3월 초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모델은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안동·예천 상생 모델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모델 ▲상주시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모델 ▲칠곡군의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 모델 ▲봉화군의 이주 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모델 ▲울진군의 국가 원자력·수소 특화 교육 중심 모델 ▲울릉군의 교육혁신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등이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교육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작년 대비 22명 증원

장애 학생의 전문적 지원, 우리 손에 맡겨라!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도에는 작년 대비 22명이 증원된 523명의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 돕기 등을 지원한다. 특수교육실무사 523명 중 118명은 8개 특수학교에 배치되고, 405명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다.

주요 지원 사항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의 활동 △방과 후 활동 △등하교 지도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신규임용자는 직무연수 3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도 권역별 연수와 교육지원청별 연수 등 각종 직무 관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이나 야영 시 동숙하는 경우 1박 5만 원의 동숙비를 지급하고, 학기 준비일 4일을 부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학교 채용 통합 지원으로 학교 업무경감에 큰 기여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지원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천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관내 초·중학교 12개교에서 신청한 58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외부강사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는 총 107명(중복지원 포함)으로 지역 학교 외부강사 채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채용공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안내 등 채용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으로 담당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장은 "일선 담당 교사들에게 방학중 큰 업무 부담이 되었던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업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항공고, 해외 현장학습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2023학년도 해외 인턴십 선진지 현장학습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및 선진지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과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참여하는 학생들은 8박 10일 동안 여학연수,

항공정비실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일정은 여학연수를 통한 현지 언어 및 문화 습득, 항공정비실습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 시애틀의 문화와 역사 체험, 비행기 박물관과 미국 보잉항공사(Boeing) 에버렛 공장 방문, South Seattle College(SSC) 대학 항공정비실습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철 교장은 "학생들이 국제화된 사회에 진출하기 전 여학·해외경험 등 국제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학생 개인과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유로이 세계 무대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항공고등학교는 항공정비사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항공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국내의 항공분야에서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경북항공고, 날아라 꿈의 날개와 함께!

정금자/기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청렴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협력 다짐

의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화) 11시부터 의성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급식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학교와 업체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안전 관리 △학교급식 품질 관리 △식재료 납품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명호 교육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급식

을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업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업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급식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의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



해 학교와 업체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금자/기자



서광교 단 하나의 프리미엄 주거복합단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1월 OPEN(예정)

1577-7549

서울시,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30일부터 5% 할인 판매

서울시가 설날을 맞아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발행된 상품권 잔액이 약 4,000억 원 어치임을 감안하여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총 1,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25개 자치구별 발행액은 각 40억 원으로 동일하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나누어 발행해 동

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한다. 성북구, 용산구 등을 시작으로 13개 자치구는 오는 30일에, 중구,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30일~31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결제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하여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일인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솔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솔페이 등 5개업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 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등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광수/기자

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법인 출범!

기업지원 기능과 R&D 기능 융합으로 지역산업 혁신 활로 찾는다

경상북도는 23일 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 법인이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국정과제로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민선 8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에 따른 결과다.

경북도는 산업분야 출연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통합 대상 기관과 기관별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분류된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을 결정, 관계 기관 간 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결정했다. 그 간 통합 추진을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경협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후, 올해 1월 10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이사회 해산안과 지난 22일 테크노파크 이사회 통합(안) 등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며, 앞으로 출범을 위한 해산, 청산 등 나머지 법적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전국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설립되어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허브 기관으로 지난 20년간의 유망기술 발굴과 강소기업 육성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 성장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07년 첨단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인증·평가 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미래 차 및 경량 소재 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R&D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합

한 후 조직을 재정비해 지역산업 거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정책 기획 → R&D → 첨단 기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강화

도는 산업정책 기획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등의 강점을 가진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량 소재 개발 등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구 기능이 강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간의 결합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별, 기능별 조직 개편으로 기관 전문성 강화 및 성과창출 유도

이와 함께, 두 기관 통합 후에는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별로 조직을 재조정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개발을 통해 주력산업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한편, 도는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정했다.

초기 2년간은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의 중복되는 인력을 제외한 사업 부서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용역을 거쳐 미래산업 수요에 기반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공부문에 대한 도민의 기대 수준과 요구가 커지고 있고, 출연기관 역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산업분야 출연기관 통합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특화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육성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이남출/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첫 번째 투자협약 체결 미래형 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신호탄

오가노이드 대표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100억원 투자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 및 업무협약을 전략산업 분야인 바이오기업들과 맺었다.

도에 따르면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정병영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양지훈 넥스트앤바이오 대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 박재형 에이치엘비제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넥스트앤바이오, 도 소재 바이오기업인 바이오메이신과 투자 및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바이오특화단지, 기획발전특구 등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다, 연초에는 바이오 융복합산업 진흥 및 생태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대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과 협력하여 오가노이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오가노이드 뱅크는 환자의 세포를 수집·보관하는 곳으로, 이곳에 축적된 의료정보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나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다.

앞으로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의 축적된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앤바이오의 오가노이드 배양 및 제작기술이 더해져 향후 대규모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기업과



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가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탈모 관련 의약품 공동연구개발(R&D)은 물론 제품 상용화를 위해 다른 대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공동연구중인 탈모 치료제는 국내 제약회사와 협력해 상용화 계획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생산 및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에이치엘비제약은 연매출액 1천억이 넘는 기업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 8개를 포함해 21개를 소유하고 있는 에이치엘비그룹의 계열사이다.

협약 체결한 넥스트앤바이오는 국내에 몇 안되는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으로 지난 세포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넥스트앤바이오는 규격화된 오가노이드 배양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질의 규격화된 오가노이드를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도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협약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북에 투자한 기업들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첨단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전주시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전주로 유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리 정읍은 바이오산업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앞으로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잘 구축하여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지난해 우리병원에 개소한 혁신형 미래 의료연구센터의 연구 인프라와 오랜 기간 쌓아온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앤바이오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진 오가노이드뱅크 설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를 주도하는 미래의료의 글로벌 선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해 10조가 넘는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고려 태조왕건부터 이어져온 대게의 본고장 '영덕'

천년의 맛! 영덕대게

STAY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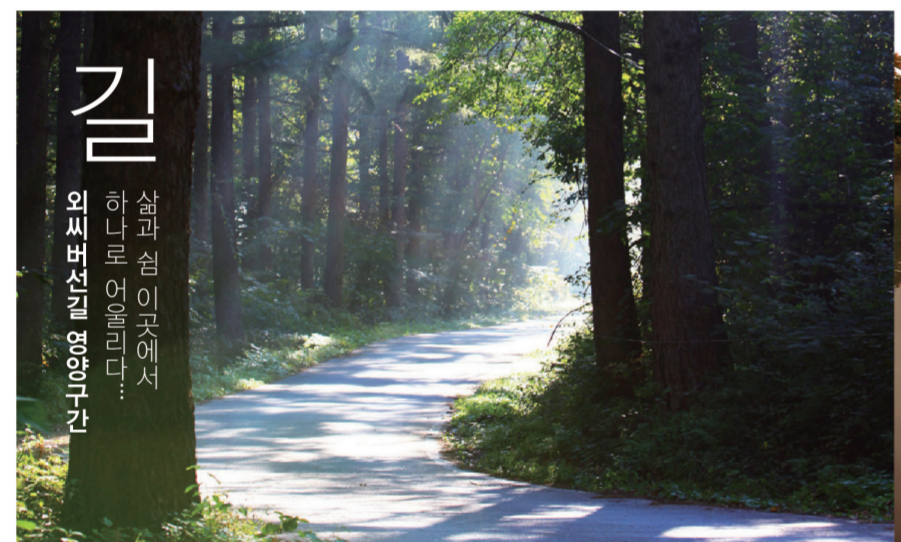
영양 들어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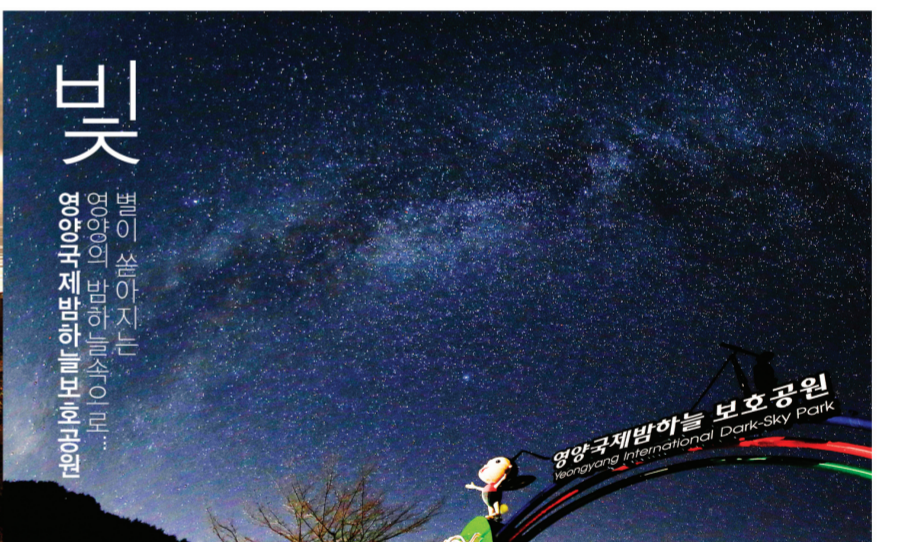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영이 나신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느끼기
영영이 만끽하기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즐기면...
영영이 빛나는 별과 만나다



얼
시공간의 대가
영영이 서식지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영이 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